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vol.385  
2017. 05.

# 법원 사람들



## LOVE

'가정의 달' 5월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값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속 깊은 사랑과 존경을 전해봅시다.  
주고 받는 기쁨도 배로 커집니다.



## Cover Story

이번호 표지 주인공들은  
탁구로 생활에 활력을 찾는  
인천가정법원 탁구동호회  
회원들입니다.

# Contents

2017 May vol. 385



발행일 2017년 5월 1일  
통권 385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우준서, 신영분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mailto: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k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애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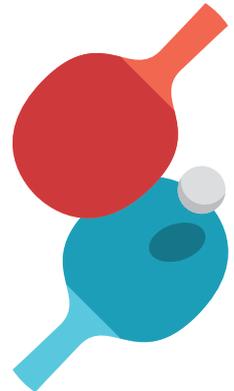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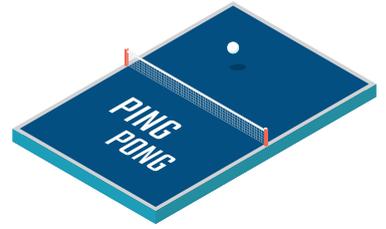
- : 인천가정법원
- 04 **프롤로그**
  - 06 **법원 특!특!**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진정한 이웃
  - 10 **포토 카툰**  
인천가정법원 탁구동호회
  - 12 **Tour**  
미래 공간과 근대건축의 상상블  
인천가정법원 인근 여행지

**공감으로**  
With Court

- 16 **찾 이슈**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 본격 시행
- 18 **나의 일 나의 삶**  
법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 21 **테마가 있는 글 I**  
WBC, 정대세, 그리고 국적
- 24 **테마가 있는 글 II**  
봄 그리고 장미
- 27 **테마가 있는 글 III**  
세상을 낯설게 보는 돋보기: 인문학에 대하여
- 30 **우리말 달인**  
'아빠'는 왜 '시아빠'는 안 된다
- 34 **생활법률**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하나요?
- 35 **법원으로의 초대**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법원 견학

**행복으로**  
With People

- 36 **현장 속으로**  
기업에게 기회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 40 **스타일링 Q**  
봄을 맞다, 새로운 나를 만나다  
- 차화진 광주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종이접기로 동심을 펼치다  
-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
- 48 **심리 상담소**  
SNS의 후유증, 나의 외로움은?
- 50 **트렌드 따라잡기**  
가로수길에서 망리단길까지  
골목길들의 전성시대
- 52 **COURT NEWS**
- 54 **독자 마당**





# 인천가정법원

글 · 사진\_ 편집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시의 랜드마크는 단연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새것과 옛것, 자연이 공존하는 이곳에는  
 사시사철 나들이 나온 가족과 여인들의  
 함박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행복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인천가정법원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온 지역민들에게  
 아픔은 줄이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정이 넘치는 친근한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가정법원



##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진정한 이웃

2016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법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지금, 인천가정법원을 향한  
지역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달리는 인천가정법원 가족들을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 사진 고인순 · 영상 이한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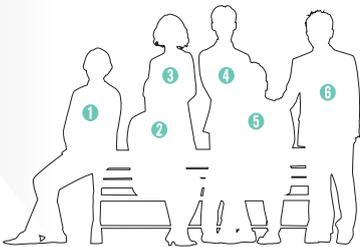


인천가정법원은 지난해

신축공공기관 건축물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 ① 임호용 법원보안관리대원
- ② 이명은 가사조사관
- ③ 강관주 판사
- ④ 정연욱 실무관
- ⑤ 강혁성 부장판사
- ⑥ 신기준 행정관



### 아름답고 편안하며 쾌적하다

새 술을 담은 새 부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환경을 의미한다. 구(舊) 인천지방법원·검찰청 터에서 새롭게 문을 연 인천가정법원을 보는 순간, 우리 시대가 가정법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강렬한 '새 부대'의 힘을 느낀다.

고통과 갈등을 겪던 민원인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공간이지만 건물의 등글고 온화한 곡선, 따뜻하고 편안한 톤,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미술품까지... 어디를 둘러보든 방문객이 잠시 마음을 두고 쉬어갈 만한 요소를 사방에 담고 있는 인천가정법원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더 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장소다. 그 덕분일까? 인천가정법원은 지난해 신축공공기관 건축물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대상을 받은 건물이 국외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일등이나 다름없는 성과를 낸 것이다. 지금의 인천가정법원이 개원되기까지 전 직원이 나무 한 그루, 안내표지판 한 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계획하고 토의하고 논쟁을 벌이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기에 수상 소식은 직원들에게 더없이 큰 기쁨이었다.

인천가정법원에 대한 깊고 따뜻한 애정은 안영길 법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가사소년재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법원 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 안에서 인천가정법원이 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환영해 마지않은 수장이었다.

“인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이혼율이 높고 그에 따른 소년사건의 발생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처리가 아닌 상담 및 부모교육, 캠프를 비롯한 후견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소년의 재범 방지방안 마련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신뢰감 가득한 목소리가 마음을 울렸다.

### 신설 법원의 자부심

이제 만 1년이 지난 신설 법원이지만 인천가정법원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인천가정법원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낱말들이다. 특히 개원식 당시 법원행정처장, 인천광역시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전 구성원이 치밀한 준비와 리허설로 빈틈없이 치러내 인천가정법원 가족 모두의 역량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 말에 경기도 인천에서 열린 제3회 전국 법원 한마음종합체육대회에서 우리 인천가정법원이 준우승을 차지



작년에는 인천가정법원  
개원으로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면  
2017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법원이었지만 전 선수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 노력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우리 법원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벽찬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보다 다양한 제도와 팀워크로 정진할 터

인천가정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보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고 전진할 준비를 마쳤다. 작년에는 인천가정법원 개원으로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면, 2017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인 것.

4월과 오는 9월 비폭력대화(NVC) 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원 개인은 물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8월 말에는 전국의 가사·소년 담당법관을 초청하여 가사·소년 법관 포럼을 개최, 최근 가사 및 소년사건에서 이슈화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사건에서는 청소년 참여법정을 실시,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꾀하며 또래의 시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혁성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그 어느 법원보다 끈끈한 팀워크와 가족애를 자랑하는 인천가정법원이기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새롭게 출발한 인천가정법원은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천 지역의 가정과 청소년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전 구성원이 쉽 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



#### Mission Start

다트 게임과  
커피 타임을 즐겨라!



Interview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감성 법원”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정법원의 중요성과 존재감은 매우 커졌습니다. 가사재판제도의 목적은 가정의 안정과 친족 간의 상호부조 등 미풍양속을 보전하여 양성평등의 이념과 인격의 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재판에서는 법원의 후견·복직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제도적·실무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간 법원의 후견·복직적 기능이 쟁점이자 당연 문제로 이에 국한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가정법원을 찾는 가정에 내재한 모든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그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도움, 즉 전문적 진단 또는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저는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 영향이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잘 전달 되어 친근하고 온정이 넘치는 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서 가사 전문법원과 일반법관, 가사·소년 전문조사관과 일반직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역할을 조화롭게 잘해내는 한편, 화합하고 단결하도록 동호회 활동

을 적극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제가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요. 우리 인천가정법원 구성원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원 준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적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선행 창단멤버라는 자부심과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산악회, 탁구회, 워크숍 등 법원의 각종 행사와 2016년 12월에 발족한 누리봄 봉사단 활동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부 소통을 이루고 있지요. 제가 우리 법원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가족 문제로 법원을 찾은 당사자를 대하면서 따뜻한 감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가정법원을 찾은 당사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각종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당사자를 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마음과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측은지심을 잃지 않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지금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우리 인천가정법원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취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인천가정법원 사람들의 한마디

따뜻한 봄날, 나른한 춘곤증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은?



강형성 부장판사

졸음이 쏟아질 때 눈꺼풀의 무게는 만근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요. 저는 억지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무게에 순응, 5분 정도 토막잠을 잘 것을 권합니다. 잠깐이라도 숙면하는 게 업무 효율에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명은 가사조사관

저는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쉽잖아요. 몸과 마음이 노곤해질 때 몸을 쭉 늘려서 기저개도 켜고 허리를 바로 해 척추도 똑바로 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사랑 한 알 같은 간식도 좋아요.



강란주 판사

보통은 점심시간 직후에 졸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판사님들과 식사한 뒤 카페에서 잠시 티타임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졸도 깨고 소화도 되어 훨씬 가볍게 오후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정연욱 실무관

저는 이곳 인천가정법원이 첫 발령지입니다. 졸음이 올 때면 한창 법원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때를 떠올려요. “합격만 시켜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지금 네가 잠이 오냐?” 하고 졸린 저 자신을 질책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하하.



신기준 행정관

저는 녹즙이나 물을 챙겨 마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을 마시다 보면 화장실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잠 깨는 데 그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 우리 법원은 화장실에 가면 자동센서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세수도 하며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싹 달아납니다.



임호용 법원보안관리대원

제 경우는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춘곤증을 떨쳐냅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 몸을 움직이으로써 졸음을 이겨내는 거지요. 직원들에게 팀을 드린다면 계단 오르내리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전신 스트레칭을 권해주고 싶어요.



영화 <핑퐁> <코리아>  
<포레스트 검프> 등을  
보셨습니까?



모두 탁구가  
제2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입니다.

# 탁구로 하나 되는 행복한 우리

인천가정법원 탁구동호회

글\_이경희 · 사진\_고인순



숨 가쁘게 오가는 작은  
탁구공이 빛내는  
이야기들은 탁구의 매력까지  
잘 드러내죠.

**Power  
up**



인천가정법원  
탁구동호회 역시  
탁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 미래 공간과 근대건축의 앙상블

인천가정법원 인근 여행지



## 仁川

인천 나들이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해 매력적이다. 미래의 공간을 슬며시 들추면 따사로운 전통의 흔적이 함께 묻어난다. 힘겹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지하철을 타고 신·구가 조화를 이룬 인천 구경에 나설 수 있다.

글·사진\_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인천의 떠오르는 랜드마크는 송도국제도시다. 인천의 미래상을 담아낸 공간에는 바다를 낀 널찍한 거리 사이로 볼 것들이 울망줄망 들어서 있다. 도심 속에 자연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센트럴파크는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상징이다. 바닷물을 활용해 수로를 만든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은 수로 옆으로 잔디밭 산책로가 드넓게 조성돼 있다. 여름이면 보트들도 오가는 한가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1



2

### 이국적 분위기 물씬,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 센트럴파크 주변으로는 미래 감각이 돋보이는 건물들이 도열해 이국적인 모습을 더한다. 컴팩스마트시티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다. 고대 및 근대 전시관에서는 인천이 기원전 미추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한 설화부터 제물포항, 수인선 협궤열차 등의 근대 문물까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1.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송도국제도시. 건물숲과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아낸다.
2. 컴팩스마트시티의 이색 건축물인 트라이블 전시관.
3. 센트럴파크의 한옥 숙소인 경원재.
4. 차이나타운으로 향하려면 중국식 전통대문인 패루를 지나쳐야 한다.
5. 일본식 가옥이 늘어난 개항장 문화지구 골목길
6. 100년 넘은 물류창고에서 문학박물관으로 탈바꿈한 한국근대문학관

컴팩스마트시티 옆에 위치한 트라이블은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가장 특색 넘치는 건물이다. 3개의 사발 모양을 띤 3차원 곡면 형상의 복합전시관은 커다란 그릇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도심 속 한옥 호텔인 경원재와 미추홀공원 역시 국제도시 한편에서 전통미를 담아낸다. 미래 공간에서 발길을 옮기면 인천의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한다. 인천항과 연결되는 인천역 인근에는 이색 산책 코스와 박물관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인천역은 전철역 이전에 한국 최초의 철로가 개설된 경인 철도의 흔적이 서린 공간이다. 인천역의 또 다른 명칭이 차이나타운역이다. 인천역 앞에는 차이나타운으로 연결되는 중국식 전통 대문인 패루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다. 인천역과 인천항이 만나는 이 일대는 예부터 화교들이 정착해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곳이다. 거리 한편에는 짜장면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골목 곳곳은 중국풍으로 단장돼 있다. 구한말 인천에 온 중국인들이 불공을 드렸다는 의선당과 자유공원에 오르는 길목, 삼국지의 명장면이 벽화로 그려진 삼국지 벽화거리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 개항장 주변 근대건축 나들이

자유공원 뒷길은 북적이는 차이나타운과는 또 다른 세상이다. 차이나타운 골목이 고전적인 투어의 의미가 강렬했다면 최근에는 개항장 문화지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개항장 문화지구에는 옛 개항 당시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들어서 있고 오래된 일본식 가옥이 발길을 붙든다. 곳곳에 함께 들어선 아기자기한 이색 카페들은 쉼터 역할을 한다.

개항 당시의 옛 창고나 은행을 새롭게 단장한 건축물들은 개항장 문화지구의 향취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창작공간이자 신개념 거리미술관으로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총 13개 동의 건축물과 창고를 전시공간 및 창작공간으로 쓰고 있다. 드라마 '드림하이' 등도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한국근대박물관은 100년 세월의 물류창고를 문학박물관으로 재조성한 곳이다. 최남선, 한용운, 김소월, 나도향, 현진건, 백석, 염상섭 등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조우할 수 있다. 숨은 그림 찾듯 인천의 근대건축물들을 만나는 과정도 흥미롭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는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공간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의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

### TIP 먹거리

“개성 넘치는 짜장면집 가득”  
-인천의 맛-



인천 하면 짜장면이다. 다른 구경을 제쳐놓더라도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맛보는 것은 인천 여행의 필수 코스다. 항구의 도시답게 해산물 거리도 곳곳에 숨어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중국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차이나타운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몇 대째 이어오는 식당들도 있다. 공화춘, 진흥각, 만다복, 신승반점 등은 각각의 개성 넘치는 짜장면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공화춘 짜장면'은 이곳 짜장면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며, 신승반점은 돼지고기와 채소를 갈아 넣은 유니짜장으로 명성이 높다. 만다복은 잘게 다진 고기가 곁들여진 '하얀백년짜장'을 이색 메뉴로 내놓는다.



인천 앞바다 여행의 관문인 연안부두에는 밴댕이 회무침 거리가 조성돼 있다. 회무침뿐 아니라 구이도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운다. 손가락 크기의 밴댕이는 입안에 넣으면 담백한 기운이 살짝 돌며 쫄쫄쫄 특한 여운과 함께 살점이 목구멍으로 흘랑 넘어간다. 밴댕이는 늦봄부터 6월 말까지가 제철인데 이때는 회로 맛봐도 제격이다.



봄에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별미가 바로 주꾸미다. 만석부두와 가까운 만석동에는 주꾸미 요리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다. 제철 주꾸미는 알이 통통하고 다리는 쫄깃쫄깃하다. 머리를 깨물면 구수한 먹물이 입안에 가득 배어 나온다. 주꾸미의 머리에는 밥알처럼 빼곡하게 알이 들어 있어 미식가들이 최고로 친다. 주꾸미는 매콤한 짬이나 구수한 탕으로 먹는다. '가을 낙지, 봄 주꾸미'라는 말은 오래된 통설이다.

#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 본격 시행

전국 법원, 4월 중순까지 양성평등담당법관 선정 작업 마쳐



법원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절차안내 및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법원 및 지원에서는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차별·성희롱 사건에서 비공식적 처리절차를 주재하는 양성평등담당법관을 선정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져 왔으나 이번 시행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더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_편집부

### 대법원, 양성평등 법원문화 정착에 메스를 들다

성역(性域)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은 필수 요건이 아닐까. 사법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여성 법관과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양성평등에 관한 법원문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회장 민유숙)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에 연구반을 구성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고, 이것이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 시행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법원행정처는 2016년 3월 연구반장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연구반’을 조직해 2017년 1월까지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연수 중 성인지(性認知) 교육 강화,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북 마련, 성차별·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개선,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 연구 및 도입 등이 그것이다.

### 양성평등담당법관의 역할과 기대 효과

전국 70여 개 법원 및 지원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양성평등담당법관을 선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선임된 담당법관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단독·배석 판사 등으로 다양하며, 남성 법관도 포함됐다. 성인지적(性認知的) 감수성, 성평등 관련 이슈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동료 법관들의 추천 또는 선출을 거쳐 양성평등담당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양성평등담당법관은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법원 내 조력자이자 비공식적 처리절차의 주재자 역할을 한다. 즉, 성차별·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양성평등담당법관이 피해자 상담 및 행위자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다. 만일 관련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양성평등담당법관은 그와 같은 비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사건처리를 주재하고, 사실관계·처리방향 등에 관하여

### \* 문제 발생시 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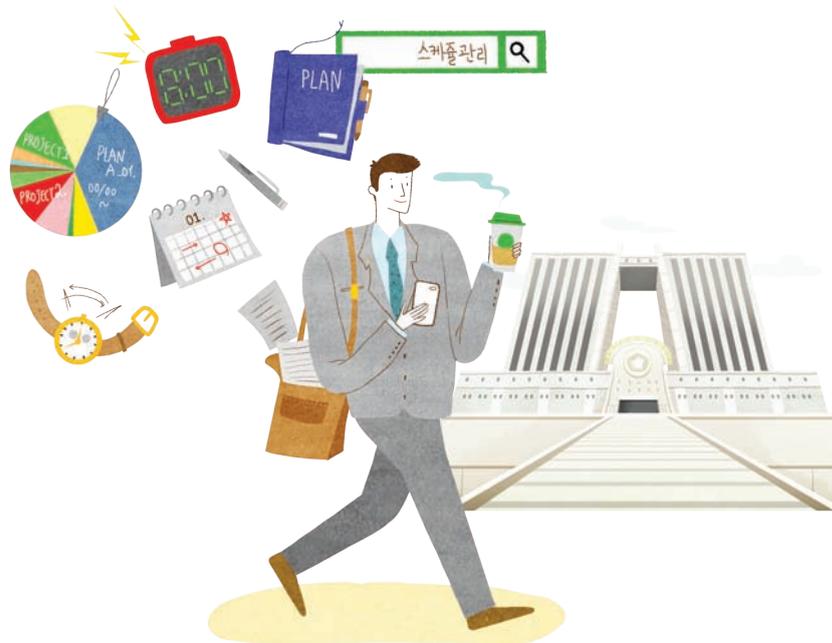


관련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이후 징계 등 공식적 처리 절차로 사건을 인계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사건 내용에 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법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도 면제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앞으로 사법부 내 양성평등 문화·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인적 네트워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양성평등담당법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제도 도입 배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의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

## 법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글\_ 박찬식 대전고등법원 민형과장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는 엽서에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의 제목을 써서 라디오 방송국에 보내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었다. 계절도 이때 즈음인 것 같다. 나도 엽서에 사연을 써 보내면서 조용필의 ‘여와 남’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다. 그런데 내 엽서가 채택되어 라디오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내 글을 읽어 주고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엽서에 적어 보낸 글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지구 위에 받은 남자, 지구 위에 받은 여자란 천리가 있어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생기고 그 말과 같이 인간은 비애, 눈물, 우울, 탄식, 절망, 애상, 정한, 고독 속을 맴돌다가 외로움에 잠긴다. 그러나 태양이 빛나는 젊은 청춘 시절에 어찌 그런 애수와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 있으랴? 우리 모두 내일의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라는 내용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유치한 글이지만 내 젊은 시절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좋다. 당시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희망을 노래하고파서 쓴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층에서부터 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왔다. 내가 근무하는 민형과는 9층이다. 아파트로 보면 거의 15층에 가깝다. 9층에 다 오르면 숨이 가빠진다. 그래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는 것이다. 가끔은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 9층에서 바라보는 대전 도심 풍경 속에 나지막이 흙플러스와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인다. 그리고 대전법원 별관 증축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모두 바쁘게, 그렇게 세상은 일상처럼 매일 반복되는 것만 같다.

커피 향이 좋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나의 일과 나의 삶을 잠시 회상해본다. 나는 법원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행정직 시험을 보고 제천시 백운면사무소에 서기보로 입사하여 1년 5개월 동안 근무했다. 당시 대민업무가 많아서 시시때때로 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 매월 1일과 15일은 새마을 대청소, 봄이면 산불조심 캠페인과 꽃길 가꾸기, 수해 시 비상근무, 1년에 1주씩 감사를 4번이나 받는 등 주말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그 때문인지 당시 내가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어디인지 고민하였고, 그것이 법원에 입사한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재판 외의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행정부에서 근무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법원에 근무한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행복 자체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나에게 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사1과장님이셨던 홍승옥 과장님 말씀에 따라 소송수행자분들과 함께 『국가소송수행 업무편람 및 소송사례』란 책을 발간하여 전국 법원에 배포한 일이다. 당시 책을 발간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현재 국가소송수행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소송수행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대전고등법원 국가소송수행 업무를 맡고 있는 박재성 사무관님으로부터 이 책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해졌다. 당시 책을 발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홍승옥 과장님과 책을 발간하기까지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은 당시 국가소송수행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법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같이 근무하는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며 함께 동료애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 좋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건네는 따뜻한 말과 농담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는 민형과 분위기를 가로수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벚꽃처럼 봄날의 따스함으로 화기애애하게 꽃피우리라! 민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다.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인 조원정, 이규형 사무관님이 재판사무처리 모범공무원 1등에 선정되고 이종현 실무관님이 2등에 선정된



사실이다. 다른 모든 분도 훌륭하시지만 두 사무관님들은 입사가 빨라 경험이 많고 자질도 훌륭하고 뛰어난 것 같다. 두 사무관님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주욱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오늘도 소망한다. 모든 민형과 직원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희망차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하나의 작은 과오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는 1년에 2번 정도 인사철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직원분들에게 글을 써서 메일로 보낸다. 직원들 간에 화목한 분위기에서 지내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당부와 함께 과장으로서는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 메일로 보낸다.

올해부터 나는 소통의 한 행사로 국장님을 모시고 사무관님들과 1주일에 한 번씩 스크린골프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일까? 골프연습장에 가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에서만 골프를 배워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예전에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스크린골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간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운동이라 열심히 배워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다. 나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끔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크린골프를 할 때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치면 '나이스 샷'을 하는 것처럼...

창밖에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내일이라는 희망이 직원들 모두에게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우리 모두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려 민형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같이 근무하게 되어 고맙다고... ☺

# WBC, 정대세, 그리고 국적

글\_김동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이스라엘이 야구를 한다고?

지난 3월 개최된 야구 세계대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이하 WBC)’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안타깝게도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대회에서 대한민국에 패배를 안긴 바 있는 네덜란드 대표팀에 패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 사람이 그 나라에 야구 대표팀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이스라엘 대표팀에 연장 승부 끝에 패배한 것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구는 이번이 많은 스포츠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패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일은 WBC 특유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야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창설된 WBC인 만큼 되도록 많은 나라가 출전할 수 있게 선수들이 자신의 원래 국적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중 1명’의 국적을 선택하여 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이스라엘 국적인 경우 그 선수는 이스라엘 국가대표 선수로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은 미국 국적이지만 부모나 조부모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 선수가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참여한 것이 이러한 이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인민 루니’ 정대세의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다른 스포츠의 국가대표들은 어떨까요.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북한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여 북한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장면으로 유명해진 정대세 선수는 특유의 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인민

루니'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대세 선수는 본인은 물론 조부모, 부모도 북한 국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어떠한 연고도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정대세 선수의 국적은 법적으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고, 또 정대세 선수는 이러한 사정에도 어떻게 북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상황은, 정대세 선수의 가족사 및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의 국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정대세 선수의 조부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인데, 이러한 재일교포들은 8·15 광복 이후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여 일제시대에 가지고 있던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었고 일본은 대한민국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북한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동포들은 일본 내에서는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이른바 '조선적(朝鮮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대세 선수의 부친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모

친은 조선적인 상태였으므로 정대세 선수의 국적 역시 부친의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대세 선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과 연계된 일본 내 초총련이 운영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그곳에서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2007년 국제축구연맹(FIFA)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필 진술서까지 보내는 우여곡절 끝에 북한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Soccer!

축구계에는 정대세 선수만큼 복잡한 사연이 아니더라도 국적과 국가대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제축구연맹은 선수가 국적을 변경하여 변경된 국적의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인 1934년에 당시 이탈리아의 독재자이던 무솔리니가 아르헨티나 국적의 우수한 선수들을 이탈리아로 귀화시켜 이탈리아월드컵에서 자국이 우승하도록 한 일도 있고, 비교적 최근인 1998년에도 프랑스월드컵 예선에서 벽안의 '로페스'라는 선수(본명은 Wagner Lopes라고 합니다)가 일본으로 귀화하여 한일전에 출전한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잦아짐에 따라 국제축구연맹은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몇 번의 규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①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는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뛸 수 없고 ②그렇지 않은 선수라 하더라도 자신 또는 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새로이 국적을 취득한 나라에서 출생하였거나, 18세 이후 그 나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나라의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축구계에서는 국적과 국가대표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들이 최근에도 계속 벌어집니다. 독일에서 가나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 축구선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형 케빈 프린스 보아텡(Kevin-Prince Boateng)은 가나 국적을, 동생 제롬 보아텡(Jerome Boateng)은 독일 국적을 선택하여 둘 다 국가대표로 뛰었고, 심지어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는 맞대결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국적'의 의미

앞서 본 야구와 축구의 사례 외에도 여러 스포츠에서 국적의 선택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규정이 많고, 그에 따라 선수들이 국적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국적과는 다른 국가의 대표선수로 활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국적을 선택하는 동기로는 원래의 국적으로서는 출전하기 어려운 세계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명예욕, 세계대회 출전을 통하여 프로 스포츠에서의 연봉을 보장받고 싶다는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하나의 동기만으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국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취약 종목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들의 귀화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외국인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귀화 전에는 대한민국과는 별 관련이 없었고 피부색이나 성장 과정 역시 우리와는 판이한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활약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각, 그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해 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중 다른 외모적 특징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말 실력(어머니가 우리말에 서툴러 어릴 때 제대로 말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으로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WBC를 계기로 스포츠에서의 국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그 아이들이 생각난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환호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 역시 우리와 같이 환호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험이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 이제 사무분담이 바뀌어 올해에는 가사사건을 맡지 않게 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법원에서 그러한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했던 생각을 실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



# 봄 그리고 장미

글\_김판목 대구지방·가정법원 김천지원 행정관



향긋한 꽃향기와 아름다운 꽃나무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따듯한 날씨와 사랑거리는 봄바람은 기분을 설레게 해주는 바로 봄. 대지를 흠뻑 적신 봄기운이 꽃을 통해 세상에 퍼진다. 꽃은 세상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꽃망울을 터트린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어서인지 사람들이 한결 밝아진다.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어깨를 펴고 동시에 일어 있던 마음도 퍼진다. 봄이 되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이해심도 넓어지며 뭔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아무래도 봄은 화사한 기운을 몰고 오는 것 같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화사한 옷차림? 봄철 잃어버린 식욕을 돋워주는 봄나물? 아니면 봄 소풍의 설렘? 춘곤증? 여름을 위한 여성들의 다이어트? 새로운 계획?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내가 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만발한 꽃들이다.

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은 바로 벚꽃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벚꽃보다 장미를 좋아한다. 얼마 전 어떤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1위로 뽑힌 것이 장미라는 것을 보았다. 장미는 언제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앞자리에 서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장미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미는 가장 외롭고 힘든 고뇌를 아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장미와 호박꽃을 비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예부터 장미의 아름다움에 반한 이들이 장미를 너무 많이 꺾어가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것이라고 한다.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 담장 너머에 호박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인지 장미의 날카로운 가시와 새빨간 꽃잎보다는 짙은 노란색의 넓적한 잎과 보송보송한 가지의 털을 가진 호박꽃이 더욱 친숙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아름답다’는 말... 이 말은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인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나에게서는 호박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송이보다 더 흰 안개 꽃에 묻혀 있는 장미의 꽃봉오리를 볼 때면 황홀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장미를 꽃 중의 꽃이라고 하나 보다. 줄기의 날카로운 가시의 위력 또한 엄청나다. 장미의 가시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든 누구든 아름다움 뒤엔 그 아름다움을 지킬 힘이 존재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장미의 제대로 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것 같다. 사람도 젊음이 가장 아름답다던데 젊었을 때의 걸치장보다는 늙어서 자신의 내면을 다듬으며 성숙한 삶을 보일 때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장미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송이의 장미가 한 생을 마치고 한 잎, 두 잎, 어두운 꽃잎이 질 때, 장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짧은 생이었지만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시든 장미도 방에 걸어두고 영원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한 송이 장미의 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 것이다. 그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한다. 꽃이 시들면 아쉬움 없이 져야 한다고.... 진정한 장미의, 아니 한 송이 장미의 마지막이 아닌 긴 새로운 시작까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움을 아는 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장미가 꿈을 이루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솔직히 사람의 겉모습, 옷차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데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치중한 나 자신이 부끄럽다. 나 자신부터 걸치장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정신적 내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장미가 활짝 피기 위해 긴 시간을 인내하듯이 나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외로움과 고뇌를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늙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장미가 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활짝 피었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꿈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는지 생각해봤다. 과연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시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지, 또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봤다. 나는 작년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에야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목표 한 가지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즐거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난 후에 돌아켜보면 뿌듯한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꿈은 크게 이상은 높게”라는 말이 있다. 꿈을 크게 키우고 그 꿈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겠다. 지금의 나로 안주할 생각이 아니라면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로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항상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최선을 다하여 누구에게나 ‘나’를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얻은 결실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값지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월은 젊은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자신을 멋지게 가꾸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지금까지 나도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앞으로 그보다 큰 난관이 여러 번 닥칠 것이다. 하지만 나도 꿈을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하면 내 인생이 꽃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을 위해, 내 꿈을 위해 기다리고자 한다.

봄은 설렘 가득한 계절이다.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듯 수많은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봄이 되기를 바라본다. c

# 세상을 낯설게 보는 돋보기: 인문학에 대하여

글\_김나량 인천지방·가정법원 부천지원 민사과 실무관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아르르 태어나  
잠시 서툰 어리둥절해 하네  
나월 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 「나월과 아침」, 오규원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생기를 더해가는 봄입니다. 새잎을 틔운 나무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규원 시인은 나무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어느 봄날 아침의 정경을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태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그 잎들이 ‘어리둥절해 한다’는 표현이 떠올리게 하는 모습은 귀엽기까지 합니다. 오규원 시인은 평범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한편의 시를 그려냈습니다. 이 시인의 시선처럼 지금부터 ‘낯설게 보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1. 낯설게 보기: 들여다보기

앞서 소개해드린 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 특히 시는 일상의 삶을 낯설게 보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문학에서는 아예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되어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 을 말합니다. 시인은 특유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낯설게 보고 그것을 섬세하게 묘사하지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고 열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꺼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딱딱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고고 잘 시간이야

- 「스며드는 것」, 안도현



광고 기획자 박웅현의 『여덟 단어』에서 이 시를 접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간장게장을 보면 물개 박수를 치면서 바로 밥 한 공기를 푹딱 해치우는데요. 안도현 시인은 간장게장을 보고 삶의 어찌할 수 없음에서 오는 비애와 천천히 스며드는 그 비애를 받아들이는 존재의 숙명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간장게장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들여다본’ 것이지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깊이 있게, 천천히, 자세히, 애정을 가지고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2. 낯설게 보기 : 비틀어 보기

이번에는 미술 영역으로 넘어와 마르셀 뒤샹의 <샘>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미술에 무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소재로 화제가 된 작품,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부천지원에서 주최한 ‘인문학 愛 빠지다’라는 제목의 인문학 강좌를 듣고 이 작품의 의의를 배우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 대부분은 변기를 화장실에 있는 배설의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뒤샹은 남성용 소변기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통념과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술 공간에 전시된 일상적인 사물도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 3. 낯설게 보기 : 새롭게 보기

문학, 미술 외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낯설게 보는 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대상을 낯설게, 다르게, 새롭게 보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은 결국 세상을 낯설게 보는 시각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과도 연결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더 잘 느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생활인으로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되풀이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복되는 업무, 반복되는 일상에 마비된 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규원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을 때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철학자 강신주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꺼내 들며 “인간은 분명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항상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오직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조우할 때에만”, 즉 “친숙함이 사라지고 낯설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인문적 사유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결국, 무감각한 일상 속에서 잠자는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지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 못 보는 혹은 안 보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보기 위해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 4.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렇다면 낯설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인문학으로의 여행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깊은 여행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부천지원 인문학 강좌에서 정약용의 형법서 『흙흙신서』를 통해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법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풀어낸 강의, 중국인의 빨간색 사랑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살펴본 강의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9주간의 인문학 여정은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사를 확장하고, 세상을 낯설게 보는 힘을 조금이나마 성장시킬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넓고 깊은 인문학의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니 제 주변에 있던 인문학이 보였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법원 사이버 연수원 누리집(<http://scourt.hunet.co.kr>)에서도 인문학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라는 고은 시인의 말씀처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인문학 여행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나를 둘러싼 세계를 낯설게 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아빠’는 돼도 ‘시아빠’는 안 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마움을, 부모는 자식의 사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지요.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깊고, 이웃 간의 예절도 무척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혹은 친척이나 이웃 간의 호칭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들어 대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집안 어른들로부터 언어 예절을 바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 호칭을 잘못 쓰는 일이 흔합니다.

글\_엄민용 기자(경향신문/ 前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부회장)

### 가족 간의 올바른 호칭법은?

젊은 새댁이 시아버지를 ‘시아빠’로 부르거나 남편을 ‘오빠’나 ‘아빠’로 불러 어르신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일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로 이르거나 부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국립국어원도 이런 흐름을 인정해 2011년 12월 <표준 언어 예절>을 새로 발간하면서, 이전까지 유아들만 쓰는 말로 다뤘던 ‘아빠’를 성인들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시부모는 친(親)보다는 예(禮)를 앞세우는 사이로, ‘시엄마’ ‘시아빠’로 부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언어예절입니다. 남편을 ‘오빠’나 ‘아빠’로 부르는 것 역시 우리의 언어예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자신의 장인·장모를 ‘빙장어른’과 ‘빙모님’으로 부르며, 그것을 바른 언어예절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빙장(聘丈)’은 “다른 사람의 장인(丈人)을 이르는 말”이고, ‘빙모(聘母)’ 역시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이라는 게 국립국어원의 견해입니다. 자신의 장인·장모에게는 ‘빙장’과 ‘빙모’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이와 함께 남편의 남동생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바른 호칭이 아닙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친형제인 백부(伯父)나 숙부(叔父)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동생을 ‘삼촌’이라 부르면 속된 말로 ‘족보가 물구나무선 꼴’이 됩니다. 남편의 남동생이 미혼일 때는 ‘도련님’, 결혼했으면 ‘서방님’이 바른 호칭입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동생을 두고 엄마가 늘 ‘삼촌’이라고 부르는 탓에 아이들까지 계속 ‘삼촌’으로 부르는 일이 많은데, 그 삼촌이 장가를 가면 ‘작은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에서 “누나의 남편은 자형(姊兄)이라 하고,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妹弟)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매형(妹兄)’은 쓸 수 없다는 거지요. 자매(姊妹)의 ‘姊’가 손위 누이를 뜻하고 ‘妹’가 손아래 누이를 뜻하므로, ‘妹’에다 손윗사람을 이르는 형(兄) 자를 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는 ‘매형(妹兄)’ ‘자형(姊兄)’ ‘매부(妹夫)’ 모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견해입니다.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는 ‘매제’와 ‘매부’를 쓰지요. 한자의 의미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널리 쓰는 호칭을 인정해 준 것이지요.

이 밖에 아내의 오빠는 형님과 처남, 아내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아내 남동생의 아내는 처남댁, 아내 여동생의 남편은 동서, 아내의 큰아버지는 처백부, 아내의 작은아버지는 처숙부라 하고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편 형의 아내는 형님, 남편의 누나는 형님, 남편의 누나 남편은 아주버님, 남편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남편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 남편의 큰아버지는 큰아버님, 남편의 작은아버지는 작은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 아버님과 아버지는 어떨 때 사용?

참, 우리 입에 정말 자주 오르내리는 ‘아버님’도 잘못 쓰기 쉬운 말입니다.

국어사전들은 ‘아버님’을 “아버지의 높임말”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무 때나 ‘아버지’와 ‘아버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싶습니다.

물론 제가 제 아버지께 쓸 때는 ‘아버지’를 쓰든 ‘아버님’을 쓰든 상관 없습니다. 누구는 “남의 아버지나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에게만 ‘아버님’을 쓴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버지께 “아버님, 진지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화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써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를 남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님은…”이라고 높이는 경우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남에게 자기 가족을 높여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가돈(家豚)’이나 ‘돈아(豚兒)’ 등 돼지에 비유했겠습니까.

그런 예법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는 누구보다 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남에게 ‘아버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신의 부모를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해야지, ‘아버님’과 ‘어머님’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관련해 흔히 잘못 쓰는 말에는 ‘선친’도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간혹 “선친께서는 참 훌륭하셨지. 자네도 아버님의 유지를 잘 받아들여야 하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에서의 ‘선친’은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쓴 말입니다. 선친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르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대인’입니다. 선대인은 다른 말로 ‘선고장’이나 ‘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살아 계신 아버지는 ‘춘부장’, 살아 계신 어머니는 ‘자당’이라고 하지요.

이 밖에 나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뜻하는 말에는 ‘가친’ ‘엄부’ ‘가대인’ 등이 있고, 살아 계신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는 ‘자친’ ‘가모’ 등이 있습니다.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 또는 ‘망모’라 하고, 남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대부인’이라 부릅니다.

요즘 들어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라 조금 고루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알아두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말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는 높임을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직장 내 호칭은?

가족 또는 일가친척 간의 호칭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은 직장 내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말과 글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세월 속에서 태어나고, 변화·성장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글을 화석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 ‘내가 배울 때는 그러지 않았다’며 옛것만 고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얘기한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말에서 ‘아빠’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이고, 표준어로 대접받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말 역시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흔히 쓰는 ‘형’도 그런 말 가운데 하나죠. “가족 간의 호칭에서 윗사람에게 쓰이





는 ‘형’을 직장에서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은 자기와 직급이 같은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형’을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에게도 ‘형’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쓰니까요.

다만 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직급이 같지만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김형’ 또는 ‘이형’ 하고 성 뒤에 ‘형’을 붙여 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형’이 윗사람을 지칭하지만, 사회에서는 ‘형’이 주로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형’을 쓰는 것 역시 직장 내에서는 바른 언어습관이 아닙니다.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에게 ‘형’을 쓰는 것은 더더욱 안 좋고요.

결국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직장에서 ‘형’을 쓰는 일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현재까지는 자기와 나이·직급이 같은 동료나 나이·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만 쓰고, 그 외에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직원이 여자 선배를 ‘언니’ 또는 ‘○○ 언니’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성에 ‘언니’를 붙여 ‘○ 언니’ 또는 ‘미스 ○ 언니’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배’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직함을 가진 윗분 중에서는 자신을 ‘○○○ 부장님’ 따위로 부르지 않고 ‘○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불쾌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기본일 뿐 그것이 우리말 예절에 어긋나는 호칭은 아닙니다. 특히 신문사 등에서는 ‘○ 부장님’보다 ‘○ 선배’로 불리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상사에게도 ‘선배님’이란 호칭을 쓸 수 있다고 <표준 언어 예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 ‘선배’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 부장님’ ‘○ 선생님’ ‘○ 여사님’ 등으로 불러주세요. 거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줍니까. ㄷ

#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 누가 수선해야 하나요?

글\_편집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애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

##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법원 견학

# 무대 위에서 감동을 주는 단원들, 오늘은 대법원에서 감동을 받다!

글\_김화숙 · 사진\_장병국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법원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단원들. 장애를 극복하고 문화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은 프랑스 파리 초청공연 등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나눔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단원들은 먼저, 대법원에 도착한 후 소법정과 대법정, 법원전시관을 둘러보고 이희준 판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희준 판사는 장애를 극복하고 문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따뜻한 인사말로 맞이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어서 표절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표절 문제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나요?” 먼저 한 단원이 질문을 하자, 이희준 판사는 “예, 최근에도 저작권, 표절과 관련한 많은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도 제법 있고요. 흔히 알려진 표절판단의 기준도 대부분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라며 친절하게 답했다.

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나 영화 ‘재심’ 등을 보면 국선변호인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국선변호인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를 잘 해주나요?” 라는 질문에, “국선변호인들은 형사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원도 2004년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수사, 공판까지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시범 실시하



는 등 국선변호인들이 형사재판 변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단원들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자, 이희준 판사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형법에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희준 판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대법원에서 준비한 선물과 간식을 받은 단원들은 견학의 소회도 밝혔다.

“오늘 행사가 많아 같이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쉽네요.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견학은 법과 법원에 대한 저의 상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 이영옥 사무국장 -

언제나 무대 위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단원들은 오늘 대법원 견학으로 특별한 감동을 받는 하루가 되었다며 즐거워했다. ☐

## 기업에게 기회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도산·개인도산·국제도산의 각 분야별 체계를 정비하고, 중점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글\_ 강나은 · 사진\_ 고인순





### 서울회생법원의 첫걸음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9월 1일 개원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시행일을 6개월가량 앞당겨 통과시킨 뒤 12월 8일에 3월 1일 개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이 앞당겨진 배경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과 개인의 파산사태 급증, 그 밖의 변화된 경제 여건과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개원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개원식은 서울회생법원 류제연 총무과장과 서울회생법원 홍보대사 전소영 기상캐스터가 공동사회를 보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은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치사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법무부 장

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서 서울회생법원이 국민경제 발전의 튼튼한 발판이자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이 엿보였다.

###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이고

성공적으로 개원식을 끝낸 서울회생법원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한편 전문성 높이기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이용을 원하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과 무료로 상담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채무자들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이



워킹 런치와 회계 강의, 각종 워크숍과 간담회 외에 최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회생법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기회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관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킹 런치와 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 런치 '경제 2번가를 그리다'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자 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TED'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과 같은 미니 프레젠테이션 강연 프로그램과 전문가 간담회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3~4주 단위로 월요일 혹은 수요일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되어 워킹 런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계 강의도 법관과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매주 화, 목요일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회계 강의에 서울회생법원에 소속된 전체 법관과 회생·파산 사건 관리 감독·조사업무 담당자인 관리위원, 내부조사위원, 내부회생위원 전원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참여하고 있다. 매년 120명 정도의 법관·직원들이 참여해 '재무제표분석 실무' 과정을 기초로 회생법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를 듣고 있다. 워킹 런치와 회계 강의, 각종 워크숍과 간담회 외에 최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회생법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MINI Interview



전소영 SBS기상캐스터 서울회생법원 홍보대사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이미지의 법원에서 저를 홍보대사로 임명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법원의 깨끗한 이미지에 맞춰 저 자신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법원 홍보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서울회생법원이 국민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도록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〇〇  
서울회생법원과 국민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제연 서울회생법원 총무과장

3개월 만에 개원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이렇게 빨리 개원하게 된 배경에는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감만큼 국민이 회생법원에 가는 기대도 클 것입니다. 제 이름이 건질 제(濟), 이를 연(連)입니다. 회생법원에 와보니 제 이름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힘든 상황에서 건져 다시 사회와 이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만큼, 이름만큼 최선을 다해 서울회생법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〇〇  
서울회생법원 발전을 위해 기대만큼,  
이름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적시에, 실질적으로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P-Plan 회생절차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으로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P-Plan 회생절차는 채권 금융기관 등 채권

##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회생을 신속하게

자와 채무자회사가 사전협의하여 준비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뒤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를 밟게 하는 제도다. P-Plan 회생절차를 제대로 준비해서 이용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회생의 성공 가능성과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로써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많은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에 복귀하도록 서울회생법원이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서울

회생법원은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관련 기관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하고, 법관과 직원들 역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 출범과 더불어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용한 법인회생제도인 P-Plan 회생절차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들이 P-Plan 회생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며 P-Plan 회생절차에 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봄을 맞다, 새로운 나를 만나다

광주지방법원 차화진 보안관리대원은 법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으로서 늘 단정하고 각 잡힌 제복으로 강인한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왔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Q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은 이제 겨우 25세인 그녀의 나이로 이루어보아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제복을 벗고 여성미 가득한 사랑스러운 옷차림으로 사방을 핑크빛 봄으로 물들인 그녀를 함께 만나보자. 글\_이경희 · 사진\_이성원

### 차화진

광주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 Style Change



### 유쾌 상쾌 발랄한 꽃띠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보안관리대원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직군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는 오늘의 모델, 차화진 광주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빈틈없이 제복을 차려입고 법원 방문객들을 설득하거나 진정시키고, 극단적인 경우 상대를 물리적으로도 압박해야 하는 그녀의 일상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차화진 보안관리대원이 스튜디오 문을 뚫음 열었을 때의 놀라움은 대단한 것이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봐도 그녀의 첫인상이 워낙 ‘보안관리대원’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은 생기발랄함, 가느다란 팔과 다리, 장난기가 가득한 미소와 시종일관 깔깔 터지는 웃음까지, 차화진 대원

의 유쾌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스튜디오를 가득 물들였다. “작년 1월에 광주지방법원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니다. 경찰법학과를 졸업하기도 전에 법원 가족이 된 거죠. 저는 광주 관할 법원 기관을 통틀어 보안과에 근무하는 유일한 여직원이기도 해요.” 예쁨을 많이 받겠다는 소리에 차화진 대원이 긍정의 웃음을 터뜨렸다.

차화진 대원은 누군가의 추천으로(지금도 누군지 모른다고...) 받은 스타일링 Q 모델 제의도 화끈한 성격답게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나’ 싶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여성 보안관리대원은 선머슴 같고 멧에도 관심이 없으며 운동만 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주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원래 1월에 찍으려다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4월로 다시 날짜를 잡은 거였어요. 나름 우여곡절 끝에 나온 자리이니 오늘 정말 즐겁게 촬영해보고 싶어요!”



### 팔색조 매력을 뽐낸다

별이 박힌 검은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차화진 대원을 본 순간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미국의 팝스타, 국민여동생 아리아나 그란데를 쏙 빼닮은 스타일링이 기가 막히게 어울렸기 때문이다. 놀라움은 그뿐이 아니었다. 포즈면 포즈, 미소면 미소, 포토그래퍼의 주문을 뛰어넘어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그 모습은 보안관리대원이 아니라 프로 모델에 더 가까웠다.

평소 근무할 때는 제복을 갖춰 입지만 일상에서나 출퇴근 시에는 세미정장이나 캐주얼 등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잘 입는다는 차화진 대원. 가장 좋아하는 건 찢어진 청바지란다. “주변에서 제복을 입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세요. 머리를 묶었을 때와 묶지 않았을 때도 다르다고 하시고요. 퇴근 후에 좀 차려 입고 회식 장소에 가면 바로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실 때도 많아요. 하하하.”

### 법원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작년 1월에 입사했으니 이제 1년하고 5개월 동안 법원 생활을 한 그녀가 가장 생생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억은

〈세월호 재판〉이다.

“당시에는 정규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했어요.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동영상이 재생됐는데 유가족도 그렇고 변호사, 방청객들까지 모두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유가족 분들이 심하게 오열하시면 옆에서 다독여드리고 나가서 잠시 쉬었다가 오자고 안내해드리고 그랬죠. 법정 보안대원의 역할에 대해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차화진 대원은 현재 민사, 형사는 물론 성폭력 재판에도 전담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어진 모든 재판은 같은 무게로 중요하지만, 성폭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음을 쓰고 있다.

“성폭력 재판정에는 많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십니다. 저는 늘 피해자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해요. 피해자인 그분들께는 법원이 나쁜 이미지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재판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법원이 무서운 곳이겠지만 피해자분들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법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께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법원으로 보이고, 내가 법원의 이미지가 된다’고 조언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 내가 곧 법원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최고의 선물을 받은 즐거움

검은색 미니 원피스 다음에는 흰색 미니 원피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풍적이거나 순수하거나, 모든 느낌이 맞춘 듯 어울리니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신이 났다.

“평소에 입어보지 못한 옷을 실컷 입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딱 달라붙는 흰 원피스를 입으니 여성스럽게 느껴지는 게 참 좋았고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신 <법원사람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부족한 저를 늘 챙겨주시는 광주지방법원 보안관리팀 식구들, 황제의 담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



평소에 입어보지 못한 옷을 실컷  
입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신  
〈법원사람들〉에 감사드립니다.



## 차화진 대원을 위한 스타일링 TIP

### Fashion



첫 번째,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과한 장식은 답답하고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은색 머리띠만 착용했어요. 꼭 막힌 구두보다는 시원해 보이는 구두로 코디했어요.

두 번째, 툭툭 튀고 귀여우면서 세시한 팝 스타 느낌으로 코디했습니다. 머리는 높은 반 묶음 스타일로 묶고 굵게 컬을 주어 화려한 느낌을 더했어요. 시선이 위로 향할 때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는 점은 큰 귀걸이로 시선을 끊어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세 번째, 귀여우면서 세시해 보일 수 있는 뷔스티에 원피스에 딱 붙는 스트라이프 크롭톱을 매칭했습니다. 리본 장식이 달린 힐로 소녀 느낌을 표현했고, 핑크색의 딱 붙는 귀걸이로 포인트를 짙하게 표현해봤어요.

네 번째, 같은 미니 원피스지만 팝 스타가 아닌, 요정같이 상큼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스타일입니다. 원 솔더로 한쪽 어깨와 팔이 드러나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점은 우아해 보이도록 진주 팔찌를 착용해 보완했어요.

### Hair & Make up



메이크업은 피부를 희고 글로시하게 표현한 뒤 복숭아색 블러셔를 앞볼에 동글게 발라 귀여워 보이도록 했습니다. 눈썹에서 눈썹 앞머리 부분을 살짝 도톰하게 잡아 우울해 보이지 않도록 했으며, 속눈썹은 눈두덩과 수직이 되게 긴 속눈썹을 붙여 과한 느낌을 없애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헤어는 굵게 웨이브를 준 뒤 의상에 따라 업스타일, 앙 갈래 스타일 등 다양하게 연출했습니다.

### tip

피부가 하얗고 워낙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다양한 스타일을 잘 소화해냈어요. 여성스러운 스타일과 귀여운 스타일이 모두 잘 어울렸고요. 패턴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옷으로 포인트를 주어 입어도 좋고, 여성스럽게 떨어지는 라인의 드레스나 소재가 여성스러운 옷에도 도전해보길 추천합니다.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 종이접기로 동심을 펼치다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

김영만 원장은 2015년 7월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을 통해 이제는 이미 커버린 어른들의 동심을 다시 펼쳐냈다. 오랜만에 우리 곁에 나타난 그는 사실 항상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색종이를 접고 있었다. 늦깎이로 종이접기를 시작한 그는 어떤 고난이나 유혹에도 손에 쥔 색종이를 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가 지금 어른 세대에게도 여전히 '선생님'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다. 글\_강나은·사진\_고인순



김영만 아저씨와 배우 신세경(출처 : MBC 방송화면 캡처)

**Q. 2015년 7월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에서 모습을 보여 주신 후에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계속 출연합니다. 마산대학교, 수원여대 아동미술과에서 강의를 하고 유치원, 백화점 강의도 합니다. '마이리틀텔레비전' 출연 이후에는 청·장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나 인문학 강연을 위해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최근 3월에는 200~300명 정도 되는 군인 코파지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국내 봉사 외에도 일 년에 한 번은 해외 봉사도 하고 있어요.

**Q. 김영만 선생님께서는 종이접기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시셨는데요. 국내에 종이접기가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당시, 어떻게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드셨나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당시 대우실업에 광고, 그래픽 담당으로 입사했어요. 5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제 사업을 하고

싫어져서 퇴사하고 에이전트 사무실을 차리려고 했어요. 사무실 계약까지 해두고 자료 조사차 일본에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담했죠. 그때 일본에 있던 제 친구가 차라리 좀 더 머리 식히고 귀국하라고 해서 당분간 그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 딸내미 유치원 등원을 제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종이접기를 배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접기를 가르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후 귀국하자마자 아동교육과 교수, 유치원 원장들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배우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접기를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돈된 커리큘럼이 없어서였어요. 그때 저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던 미술은 그리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기는 평면 미술이고, 2D입니다. 그런데 종이접기는 입체 미술이고, 3D예요. 아이들이 입체 미술을 배우면 거리 감각과 창의성이 높아지고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죠.



비오는 날엔  
바람이랑  
따뜻한 햇살이  
공감  
2017





**Q. '마이리틀텔레비전'을 통해 많은 코딱지가 김영만 선생님과 울고 웃었어요. 결국 '마이리틀텔레비전'에서 1위도 거머쥐셨고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마리텔 채팅방에서 많은 코딱지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 출연했을 때는 '선생님 그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라는 반가운 반응이 있었고, 조금 어려운 단계로 종이접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 먼저 가'라는 재치 있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저도, 마리텔을 보고 있던 수많은 청·장년도 눈물을 흘렸죠. 사실 저는 한 시간 동안 녹화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기쁜 동시에 슬프고 미안해서요. 녹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렸던 시절의 '김영만'에 대해, 또 '김영만'을 보고 종이를 접던 시기의 자신에 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녹화 뒤에 '김영만'을 검색해서 나온 한 블로그의 글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글 내용이 이거였어요. 자신이 취업준비생인데 아르바이트를 두 개 하고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였대요. 그런데 다음팟에서 '김영만'이 나오더라고요. 얼떨결에 저를 보면서 같이 깔깔대며 웃고 종이접기를 하고 났더니 그 사이에 라면이 다 붙어서 먹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라면을 못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오랜만에 김영만 선생님과 재밌게 종이접기를 해서요. 그때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동안 수많은 코딱지들을 돌아보면서 왔어야 하는데 앞만 보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저를 보고 자라나던 아이들은 가장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IMF로 직장을 잃은 부모들을 지켜봤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무 밑천이나 도움 없이 사회에 내던져져서 취직도 어려워요. 마리텔을 통해서 요즘 청·장년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Q. 지금까지 몇십 년간 매일매일 새로운 종이접기 방법, 만들기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신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저도 한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어요. TV유치원 '하나둘셋' 할 당시에 매일 녹화를 했는데, 다음 날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6년이 지나니

까 아이디어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가을’이라는 녹화 제목만 봐도 허수아비를 접어야겠다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마 어떤 경지에 오르고 나면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종이접기를 하던 중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한눈을 팔았으면 이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 머릿속 한구석에 종이접기 아이디어가 생겨날 공간이 자리를 잡았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프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법원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Q. 김영만 선생님께서는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법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법’을 떠올리며 행동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법’이, 또 ‘법원’이 저와 멀다고 생각하니 더욱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현재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스럽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코딱지들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그동안 너무 힘차게 달려오느라 쉬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해요. 여유를 갖고 조금 천천히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즐기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훌륭한 코딱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만 선생님과 함께 **요술꽃**을 만들어봐요~



색종이 4장을 잘 맞춰 네모로 한꺼번에 접고 펴서 마주 접는다 → 엄지·검지 손가락으로 가운데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비틀면 별모양이 된다 → 양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 납작하게 누르면 사각 주머니 접기가 된다 → 양쪽 날개 4장을 겹으로 접으면 속에서 작은 세모가 나온다 → 경사진 세모 부분을 양쪽 모두 작은 세모 모양으로 잘라준다 → 네 장을 하나씩 빼고 세모 날개 겹에 풀칠하여 모두 붙여준다 → 손으로 양쪽을 잡고 활짝 피면 요술꽃이 완성!~

# SNS의 후유증, 나의 외로움은?

글 윤대현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저서로는 <윤대현의 마음성공>, <마음 아프지 마> 등이 있으며,  
라디오 <윤대현의 마음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다.

# A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통 수단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크게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소비하는 시간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들이는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 즉 연결을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도구입니다. SNS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받기 위해 아름답게 꾸민 SNS 안의 내 정체성이 실제 나와 괴리가 생길 때 스스로 초라해지고 외로워지는 느낌이 찾아오게 됩니다.

# Q



30대 남자입니다. 쉽고 재밌고, 또 다양한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어서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최근 들어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SNS 특성상 모두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올린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이 사는 모습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아예 SNS를 차단하면 될 텐데, 업무상 그럴 수도 없으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왜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내 환경이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으로는 군중 속의 고독을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환경적 결핍에 기인한 이차적인 감정 반응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죠. 생존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성적 본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힘, 외로움도 우리 유전자에 본능적 느낌으로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면 사회적 관계를 열심히 만들지 않겠죠. 인간이 발달시킨 사회와 문화는 이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바라는 외로움이 없었다면 인간이 문화적 특성을 띠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 감정이기도 한 것이죠. 타고나기를 더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의 외로

움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떤 특성의 유전적 경향을 알기 위해 하는 연구가 쌍생아 연구입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 쌍둥이를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죠.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한 외로움 연구에서 유전적 경향이 48%,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통증이지만 긍정적인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덜 외로운 사람에 비해 정서지수 EQ가 발달하죠. 외로운 만큼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파악하고 응대하니까요. 외로움이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 외로움의 특효약은 타인의 관심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

외로움의 특효약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역설적입니다.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때 외로움이 행복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Helper's high라고 하죠. Helper는 봉사자, high는 마약 같은 중추신경흥분제를 복용했을 때 느끼는 짜릿함이죠. '나 외로우니 더 사랑해줘'보다 대단한 자선, 봉사는 아니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위할 때 외로움이 쾌감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배려의 쾌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남을 배려하지는 것이 아니라, 뇌 과학 측면에서 외로움이 큰 사람일수록 남을 배려할 때 찾아오는 심리적 쾌감이 크다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한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의미와 행복감이 증가하고 생리적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내 외로움에 간혀 나를 외롭게 하는 주변에 섭섭한 마음만을 가지게 되면 내 외로움의 깊이가 더 커지는 것이죠. 벽을 부수고 외부 세계에 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때 내 외로움이 따뜻한 감성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도덕적·윤리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뇌에 내재해 있는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달려가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만 존재했다면 오히려 인류 전체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강렬히 원하는 외로움의 유전자가 함께 있기에 경쟁과 협동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인류의 존재감을 두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쾌락의 3요소로 우정, 자유, 사색을 이야기했는데요. 자유와 사색이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여유라면, 우정은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죠. 우정에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관심이 포함되어 있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정의 근간이 되는 공감 소통이라 생각됩니다.

행복과 관련된 첫 번째 요인이 진실한 우정, 즉 내 마음을 솔직하게 티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타인, 친구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입니다. 친구가 없어 외롭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날 친구가 없다기보다는 나를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좋은 관계, 우정을 만드는 일은 생존 이상의 뇌의 행복감을 위해 우선 시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

## 가로수길에서 망리단길까지 골목길들의 전성시대

최근 도시의 골목길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강남의 가로수길이 그 첫발을 디뎠다면 그 후로 연남동길, 경리단길, 최근에는 망리단길 등등. 동네 곳곳에 골목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골목길들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을까.

글\_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연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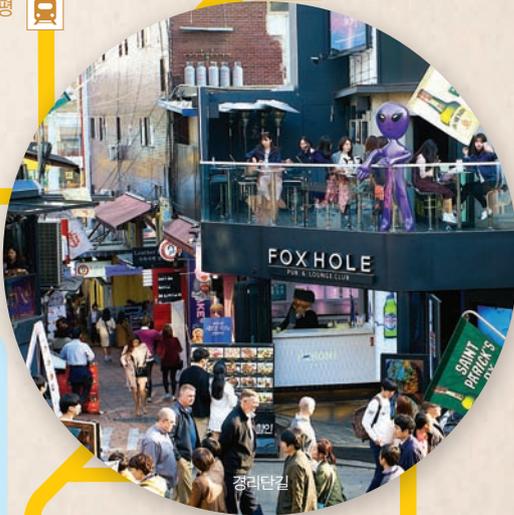
연남동



가로수길



3 신사



경리단길

망리단길

6 망원

2 홍대입구

3 인국



근정애

망미야

경리단길

6 녹사평

가로수길

### 대중의 욕망을 품고 있는 골목길들

최근 도심을 중심으로 골목길들이 곳곳에 생겨나 증식하고 있다. 거기에는 <응답하라 1988>이 상기시킨 잃어버린 골목길에 대한 향수와 추억, 나아가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어른거린다. 1970년대의 종로와 명동, 무교동 거리가 상업화의 물결을 탄 도시의 활기였다면, 1980년대의 야타죽과 오엔지죽으로 대변되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리는 과시경제의 상징이었고, IMF의 그늘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커져 온 홍대거리는 젊은이들의 문화적 갈등과 고민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생겨나고 있는 가로수길부터 망리단길에 이르는 골목길들의 전성시대는 압축 성장과 개발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길들에 대한 회한이자 그리움이다.

압축 성장과 개발 시대에 길이란 속도를 의미하는 차들이 장악한 공간이었다. 본래 마을이란 삶의 공간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생겨난 상점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저 빨리 지나치게 하는 차들의 길이 차지하면서 공간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없었다. 최근 들어서 골목길들이 차들을 밀어내고 대신 ‘걷는 사람들’을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걸기 시작하자 신사동 가로수길은 그 골목골목 도시에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고, 부암동길은 도시적인 풍경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이 됐으며, 삼청동길은 역사가 보이는 길, 이태원 경리단길은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

### <한끼줍쇼>, 골목길의 사람 냄새, 밥 냄새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응답하라 1988>에서 흘러나온 동물원의 ‘해화동’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내포한 감성은 우리를 골목길의 추억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아이를 부르던 엄마들의 목소리와 함께 골목길을 가득 채우던 ‘밥 냄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러한 추억과 갈등들이 골목길이라는 소재로 집약되어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JTBC의

<한끼줍쇼>다.

이경규와 강호동을 메인으로 그날의 게스트와 함께 어느 동네 골목길을 정해 돌아다니며 저녁 한 끼를 같이할 집을 찾는 이 프로그램은 낮의 풍경과 밤의 풍경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낮부터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그 풍경을 잡아내는 것은 일상이지만 특별한 느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천천히 걷는 속도로 동네를 들여다보면 바쁜 출퇴근길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가까스로 찾아낸, 문을 열어준 고마운 집안으로 들어가면 밥 냄새, 사람 냄새가 가득한 풍경이 펼쳐진다. 골목길에서 시작해서 골목길로 끝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잡아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다.

### 골목 상권은 살아났지만 남은 문제들

골목 상권이 살아나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환영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일어난다. 최근 망리단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다.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은 알다시피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따온 것이다. 즉 경리단길이 이목을 끌면서 월세가 치솟자 새로 가게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신 망원동으로 들어와 가게를 열었고, 이렇게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육중완이 자주 다닌 망원시장으로 한껏 모아진 망원동에 대한 관심은 망리단길이 생겨나는 촉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되었지만, 본래 그곳을 터전 삼아 살던 원주민들이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클래스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부른 바 있다.

골목길이 생겨나는 것은 도시에 인간적인 온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본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생적인 골목길로 유도해나가는 것, 이것이 길들의 전성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다. ☐

# COURT NEWS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



동 조각품인 '꽃들에게 경의를' '마음'이라는 작품을 설치하는 등 다양하면서도 기품 있는 미술품 설치를 통하여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쉼터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지원은, 서부산 지역의 힘찬 도약과 함께 하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한결같은 법원'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틀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이 2017. 3. 1.자로 개원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설치 법원은, 본원과 동부지원의 체제에서 서부지원이 추가되어 1본원, 2지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서부산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서부지원은, 관내 인구는 약 110만에 이르고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규모로 앞으로 서부산권 지역의 발전에 따라 사건 분담 비중과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 지원장으로 취임한 김동윤 지원장은 2017. 3. 2.(목)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장과 부산고등·지방검사장 등 내빈들을 모시고 부산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헌폐막식을 시행하며 서부지원의 힘찬 출발을 부산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만, 서부지원의 신축 청사는 강풍 등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약 3~4개월 동안 부산법원종합청사 일부를 임시 청사로 활용하다가 청사가 준공될 2017. 6~7월 경에 신축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축 중인 서부지원 청사에는 어린이집, 독신자숙소(18실), 북카페 형태의 도서관 등 주요 복지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을 3층에 배치하고 지하층에 직원전용 105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법관 및 직원들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주출입구와 1층 민원동에 김정명 작가의 청

2017 MAY

### 보호소년들과 판사들의 친선야구경기



총무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경기 이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이혁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아이들 실력이 지난해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특히 수비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경기 이후 소감을 말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017. 4. 15.(토) 부산 기장군 소재 도예촌야구장에서 박정태 롯데디자인츠 2군 감독이 이끄는 레인보우 카운트(부산 청소년회복센터 소속 보호소년)팀과 이혁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이끄는 테미스(부산법원 야구동호회)팀과의 친선야구경기를 2016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전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레인보우 카운트팀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야구글러브, 테미스에서는 야구배트와 야구공을 각각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기는 법원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11:11 무승부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김옥곤 부장판사, 고영삼 사무국장, 김치승

### 참여관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 요건사실론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강사로 초빙된 정태원 사무관은 요건사실이야말로 소송의 실제관계 형성의 핵심이므로 참여관들이 요건사실론을 익혀 사건의 분류 및 당사자들의 소송수행을 능동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적정·신속·공평·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강한 참여관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이번 특강과 같은 자체교육 실시 등 여러 방면에서 참여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017. 4. 17. 부터 5. 1.까지 3차에 걸쳐 민사집행과 정태원 사무관을 강사로 발탁하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및 민사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참여관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건사실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정태원 사무관은 이번 1월 정기인사 이전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법과 요건사실론을 담당한 민법 교수로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실력파 강사입니다.

첫째 날 2017. 4. 17.(월) 특강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3교시에 걸친 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참여관들이 참석하여



법원사람들  
읽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 최환석 비상계획관 전산정보국
- 남성식 실무관 인천지법
- 김장호 실무관 충주지원
- 김영진 심의관 법원행정처
- 김선화 행정관 제천지원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용자지원센터 김원교, 류창환 상담사



## 친절한 전화 안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하와이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말경 다니던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아니면 해외이기 때문인지 자주 오류 메시지가 떠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번 노력해보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문의를 보고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다 보니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던 터라 의지할 곳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담사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통화한 분은 김원교 상담사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정말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10~20분 동안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짜증이나 불평의 목소리도 없이 끝까지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저를 더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의 컴퓨터 문제로 류창환 상담사분을 안내해주셨는데, 이분 또한 저의 사정을 아셨는지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함에도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서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곳 외국 사람들은 이분들처럼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김원교, 류창환 상담사님은 자신의 직업이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원인에게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덕분에 대법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님, 꼭 칭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2017. 2. 류 ○ ○



정신병원, 요양소 등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면 전화하세요

# 구출구출 인신보호제도

  
**16619797**  
인신보호제도안내전화    구출    구출

